



협회소식

NEWS

본회, 집행부 구성후 첫 이사회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20일 본회 5층 대회의실에서 새 집행부 구성 후 첫 이사회(99년 제2차)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최상백 회장을 비롯 22명의 새로 선임된 임원들이 참석하여 돼지콜레라 박멸 추진계획과 '99년 임직원 연수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이사회의를 돼지콜레라를 박멸하는데 협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70개 시군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단위로 총 109개의 공방단을 설치해 100% 예방접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새로 지부를 설립한 남원 지부의 설립을 승인하고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양돈 지도자들이 5월 13일과 14일 개최되는



이명복 고문



김재철 고문

임직원 연수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이명복, 김재철 전 회장직무대행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사회의에 앞서 본회 노영한 전무는 최근의 양돈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으며, 각 부서장들은 최근 주요 부서별 사업실적을 보고했다.

본회, 부회장·이사 등 임원 24명 새로 선임

본회 최상백 회장은 3월30일 지난 2월에 열린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진을 새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상백 회장은 부회장에 이현윤씨와 한백용씨, 조옥봉씨, 최희태씨 등 4명과 이사에 원종억씨 등 20명을 새로 선임했다.

최상백 회장은 "임원은 양돈업계의 대통합과 화

합, 지역안배, 그리고 능력을 고려하여 진정으로 양돈산업 발전에 헌신할 분들을 선임했다”고 인선 기준을 밝혔다.(관련기사 72쪽)

본회, 돼지콜레라근절 비상대책추진 결의대회 개최



본회는 지난 4월1일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돼지콜레라근절 비상대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돼지콜레라를 기필코 조기에 박멸할 것을 결의했다.

본회 최상백 회장과 임원·지부장, 이주호 농림부 축산위생과장,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축협 등 관련기관·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용모 마산지구지부장의 선창에 따라 ▲돼지콜레라 100% 예방접종 솔선수범 할 것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농가가 없도록 박멸사업에 적극 동참시킬 것▲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자금 모금에 앞장설 것 ▲박멸 의지가 2000년 이전에 조기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관련기사 76쪽)

“양돈협회 회원 단체동물보험” 등장

- 본회, LG화재해상보험(주)와 약정 체결
 - 돈사 화재로 돼지 사망시 보험금 지급
- 돈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돼지가 사망했을 때 보



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동물보험이 개발되었다. 본회는 4월15일 L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구자훈)와 “양돈협회 회원 단체동물보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본회 회원들이 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돈협회 회원 단체동물보험”은 돈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돼지가 죽었을 경우 시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으로 본회 회원만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양돈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 모든 돼지 포함) 시가총액의 0.45%이고, 공제금액은 5%이다. 예를 들어 A 양돈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시가가 1억원일 경우 연간 보험료는 45만원이고, 화재로 돼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5%를 공제한 9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돈사의 구조가 조적조, 블록조, 철골조, 경량판넬조이어야 가입할 수 있고, 목조구조의 돈사를 소유한 농가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장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본회는 최근 양돈장에서 화재가 빈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이 축사의 경우 보험가입을 잘 받아주지 않아 화재 발생시 재기가 어렵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양돈협회 회원 단체동물보험”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돈사의 경우 화재 발생률이 매우 높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300~5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보험에 가입을 희망해도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돈사 화재보험 계약을 꺼리는 것이 현 실정이다. 최근에만도 경기도 이천과 파주, 무안 등지의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돈사 소실과 돼지 소사로 2억원에서 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이 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LG 화재 양돈협회 회원 단체동물보험 전담반(전화 : 02-310-8862-8)으로 연락하면 된다.

본회, 전국 도축장 소독 시행상태 일제 점검

본회는 전국에 산재한 일부 도축장에서 출하차량에 대한 세차와 소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4월 7일 각 도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지역내 도축장의 소독실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회는 이번 조사결과 도축장에서 돼지 수송차량에 대해 세차와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돼지 질병 전파의 적으로 간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가축 수송차량 등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세차와 소독이 의무화 되어 있다.

본회, 99임직원 연수회 개최

본회는 5월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간 양돈산업의 지도자 자질 향상과 양돈인들간의 일체감을 모색하기 위한 임직원 연수회를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본회 임원, 지부장과 지부 총무, 직원 등이 참가한다.

임직원 연수회는 축산국장의 축산시책 설명과 교양강좌, 협회 발전방향, 양돈장 경영사례 발표, 사료자가배합사례 발표, 자유토론, 친선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회비는 1인당 4만원이며, 참가자들은 5월13일 11시30분까지 연수장소에 도착하면 된다.

◇ 행사문의 : 본회 지도부 (02-553-3942)

제2검정소 “제4회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 개최

본회 제2검정소는 지난 4월 6일 제105차 검정돈 경매 행사에서 “제4회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명령 개정”에 대한 설명과 “규격돈 생산과 육류수출”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또한 검정돈 구입자들에게는 출품 종돈장에서 협찬한 후보돈을 추첨에 의해 분양했다. 경매가 끝난후에는 검정돈 구입 농장과 출품농장주와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하자발생돈에 대한 요망사항 등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협의회, 지부 소식

경남도협의회장에 서춘계 양산지부장 선출



서춘계 회장

경남도협의회는 지난 3월 18일 경남 부곡 로얄관광호텔에서 경남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영렬 경남도협의회장 후임으로 서춘계 양산지부장을 선출하였다.

화성지부, 돼지콜레라 박멸 결의대회 개최

화성지부(지부장 : 박성원)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 화성군 상남면 면사무소에서 김일수 화성군수를 비롯한 지역 관계자와 윤대열 본회 경기도 협의회장 등 양돈농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콜레라 박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에서 ▲돼지콜레라 100% 예방접종에 솔선수범할 것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농가가 없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박멸사업에 동참시킬 것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자금 모금에 앞장설 것 ▲박멸의지가 2000년 이전에 조기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날 박성원 화성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균형을 잊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모든 것을 헤쳐나온 우리 양돈인들이지만 현실의 우리 축산인들은 또다른 결심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때가 바로 지금부터이며, 누구를 위해서 서가 아니라 서로의 공존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철저한 관리와 완벽한 콜레라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선진국의 양돈인을 자부할 수 있도록 콜레라박멸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화성지부 현판식 개최



한편 이날 화성지부는 오전 12시 윤대열 경기도 협의회장, 본회 노영한 전무, 박성원 화성지부장

및 지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이전한 지부사무실에서 화성지부 이전현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경주소 :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300-2

▣변경전화 : (033)222-5111, (033)354-9111,

팩스 : (033)352-4114

본회, 남원지부 설립 현판식 개최



본회 남원지부는 지난 4월 12일(월) 전북 남원지부 사무실에서 최희태 본회 부회장과 송정기 전북도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현판식을 개최했다.

남원지부는 2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대 지부장에는 이금노씨가 선출된 바 있다.

▣주소 : 전북 남원시 하정동 202-4번지

▣전화 : 0671)631-4717

▣FAX : 0671)633-0601

영암지부, 강대천 지부장 선출



강대천

(영암지부 지부장)

영암지부(지부장 : 강대천)는 지난 3월 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일중 지부장 후임에 강대천 씨(54세)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감사에는 최일수, 이춘흠씨, 총무에는 임성주씨를 선출했다. 강대천 신임 지부장은

1973년부터 양돈업에 종사하였으며, 현재 영암군 미암면 실포리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용인지부, 홍재구 지부장 선출



홍재구
(용인지부 지부장)

본회 용인지부는 지난 3월 24일 총회를 열고 김덕우 지부장 후임에 홍재구씨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감사에 이선식,

박재규씨를, 총무에 이선배

씨를 선출했다. 홍재구 신임지

장은 용인 축협 조합장을 역임하

였으며, 현재 경기도 용인시 구

성동 중리에서 '홍재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전주·완주지부, 김광진 지부장 선출



김광진

(전주·완주지부 지부장)

전주·완주지부는 이영노 지부장 후임에 김광진씨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김광진 신임지부장은 완주군 고산면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제주지부, 부금배 지부장 선출

제주지부(지부장 : 부금배)는 지난 3월 29일 지



부금배

(제주지부 지부장)

부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충세 지부장 후임에 부금배씨를 신임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부지부장에 송명호, 강윤호씨를, 감사에 이동문, 성낙건씨를 선출했다.

부금배 신임지부장은 제주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북제주군 서부 양돈단지 대표와 북제주군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데자 1,700두 규모의 청아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지부 회원들은 '98년도 사업실적 및 수질견산(안),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당진지부, 송형식 지부장 선출



송형식

(당진지부 지부장)

당진지부(지부장 : 송형식)는

지난 4월 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손종선 지부장 후임에 송형식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부지부장에 허민희, 이덕희, 신인철씨를, 총무에 차선수씨를 선출하였다.

한편 송형식 신임지부장은 지난 93년부터 당진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서 비육돈 전문농장인 금암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양돈**

돼지콜레라 박멸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